

科學技術「국가개발體制」로

2천년엔 GMP의 3% 投資

정부는 2천년도 국민총생산 2천 5백억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5천달러의 고도선진국가로 달성기 위해 현재 GNP의 1.4%인 과학기술투자를 2천년 이전에 3%로 높이고 2천 1년까지 세계 정상급핵심 과학두뇌 1만5천명을 포함한 과학과 기술 및 산업계의 중추 고급두뇌 15만명을 집중 양성하는 등 범국가적인 「국가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를 촉진, 2천년도 총수출액 2천 3백억달러의 44%인 1천억달러를 중소기업이 담당토록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知的所有權保護 強力 要請

美, GSP縮小 可能性도 示唆

美國은 韓國에 지적소유권을 적극 보호해주고 서비스산업등의 진출문호를 앞당겨 개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2일 제4차 韓·美 경제협의회는 두나라가 교역증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고 폐막했으나 美國측이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요청을 종전보다 훨씬 더 강도있게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美國측은 韓國이 수입개방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관심품목인 퍼스널 컴퓨터·保險·담배등의 문호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으며 지적소유권보호에 대한 조치도 진전이 없는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들은 특히 내년 7월까지 우리의 수입문호가 납득될만큼 열리지 않고 지적소유권 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GSP(일반 특혜관세제도)의 수혜폭이 크게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도 비쳤다. GSP는 제2기로 들어오면서 美대통령이 수혜국들에 혜택을 정지 또는 축소

시킬 수 있는 직권을 갖게하고 있으며 1차적인 조치를 위해 내년 7월말까지 GSP수혜국들의 시장개방정도·지적소유권 보호정도·노동조건 등을 측정, 의회와 행정부에 보고토록 해두고 있다.

美대표들은 또 美國은 특정관심품목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국에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복조치(84통상법 301조)도 가능함을 유의해줄것도 당부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韓國측은 시장개방노력을 성실하게 추진해오고 있으며 한국에 급격한 개방을 요청할 경우 국내여론을 자극, 개방노력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지적소유권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적소유권중 著作權공업소유권에 대해서는 이날 하오 별도회의를 갖고 그 보호조치에 따른 제반문제를 집중 토의했으며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外國人 特許出願 激增

올전체 77%...국내 技術개발 시급

우리나라의 전체 출원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特許廳에 따르면 외국인의 對韓특허출원 비율은 지난 82년 전체특허출원 5천9백24건중 4천3백68건으로 73.7%를 기록한 이래 83년 6천3백94건중 4천7백95건으로 75.0%, 84년 8천6백33건중 6천6백36건으로 76.7%, 85년 (4월말 현재) 2천9백61건중 2천2백80건으로 77.2%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등 4개부문으로 이뤄진 전체 工業所有權출원건수에서는 외국인출원(84년)이 6만4천32건중 1만7천4백9건을 차지, 전체의 2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外國商標 그대로 使用토록

外製誤認막게 結合상표사용 완화

정부는 외국상표의 무분별한 도입과 소비자들의 外製 선호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內需用 물품에 외국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에 제조원과 기술제휴사실 등을 한글로 명시한 결합상표를 사용토록 의무화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재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회의를 갖고 결합상표를 사용할 경우 원래의 상표성격이 변질된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결합상표를 도입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바꿔 외국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되 상표가 잘보이는 곳에 제조원을 표시해 외국제품으로 誤認되는 현상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술 도입과 관련된 內需用 소비재의 외국상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무분별한 상표도입을 극력 억제할 방침이다.

「全國商品模造防止委員會」 創立

關聯團體 任員 및 專門家로 構成

全國商品模造防止委員會가 創立되었다. 國內 關聯團體 任員 및 專門家로 構成된 全國商品模造防止委員會는 지난 6월 28일 午後 2時 大韓商工會議所 中會議室에서 創立總會를 갖고 業務에 들어갔다.

이날 總會에서 있는 初代 任員選出에서는 委員長에 大韓商工會議所 金仁俊 專務理事, 副委員長에 本會 玉文碩理事와 國際工業所有權研究所長 金允培 辨理士, 委員에 서울大 韓희영 교수의 19名, 事務局長에 大韓商工會議所 閔完基 流通部長이 각각 選出되었으며 事務局은 大韓商工會議所內에 두기로 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우리 商品의 對外 이미지

刷新과 앞으로의 貿易摩擦을 最少化하기 위하여 △ 自律규제를 위한 弘報事業 △ 工業所有權등의 保護 및 固有商標開發을 위한 支援 △ 國內에 登錄된 外國商標 및 特許情報 提供서비스 △ 우리나라 固有商標 및 產業이미지 保護를 위한 支援 △ 模造商品 근절 및 商標盜用防止를 위한 政府시책에의 協助등의 사업을 推進할 計劃이다.

美國辨理士 초청세미나 盛了

美, 抗告審判制度 · 多項制 등 소개

大韓辨理士會는 지난 6월 21일 하오 1시 30분부터 특허청 연수실에서 미국변리사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특허항고 심판제도」와 「미국의 多項制 청구범위」가 소개됐다.

本會 人事

部 · 課長 一部 移動

本會는 7월 1日자로 發明振興部 金寬衡部長을 研修部長에, 研修部 金常鉉部長을 發明振興部長에, 調查部 方健錫課長을 研修課長에 各各 轉補發令했다.

한편 研修部 申春植課長은 退職하였다.

◎ 會員社消息 ◎

韓國후지카工業(株) (代表: 金東龜)는 지난 7월 1日 大元電器(株)와 合併하여 「후지카 大元電機(株)」로 商號를 變更했다.

本社 및 仁川工場(仁川市 北區 鶴田洞 286의 1) 電話는 ▲ 仁川 (524) 4721~8과 ▲ 서울 (764) 0661~5이며 九老工場(舊 大元電器) (서울 九老區 九老洞 611의 1) 電話는 ▲ 서울 (677) 1115~9이다.

한편 同社 特許擔當 申起澈 次長은 같은 날자로 企劃室長으로 승진 發令되었다. (☞)